2017년 5월 4일 목요일 **광주일보** 

11

제20490호

## 나주시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팔 걷었다

올해 WHO 인증 목표 TF팀 본격 가동 화재·교통·범죄·감염병 등 7개 분야 집중 점검 CCTV 늘리고 시민안전보험 제도 7월 시행 강인규 시장 "시민 안전이 시정 제일 목표

"취임 이후 평소 늦은 시간 인근 초등학교로 종종 산책을 다녔는데, 어느 날 여학생 한 명이 어두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미성년자의 흡연도 문제였지만, 구석지고 후미진 곳에서 여학생이 홀로 있는 모습은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다. 가로등 숫자는 충분했는 데 전체가 소등이 된 상태였다. 아마 전기요금 때문이었던 것 같았다. 다음날 당장 가로등 불빛을 밝히도록 조치했다. 안전에는 공짜도 지름길도 실수도 있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한 번의 방심과 안위한 태도는 결코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최근 '안전도시만들기' TF팀 및 실무 반 공식회의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강 시장은 올해 시정 7대 기조 중 그 첫 타이틀로 '안전제일도시 건설'을 선택했다.

강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나주시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행정이 추구하는 최상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6기 강인규 호는 올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목표로 ▲시민의 안전생활 문화 정착 및 확 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환경 조성 ▲신속한 대응환경 조 성 및 운영 등 안전도시 기본계획과 중장기 추진전략을 위한 본격적인 출항길에 올랐다.

■ 시민안전 위해 손 맞잡은 'TF팀-실무반' 본격 운영 나주시와 나주경찰서, 나주소방서, 나주교육지원청 지역 내 4개 기관은 안전분야 과·팀장급 직원 39명으로 이뤄진 TF팀 실무반을 구성하고 '안전제일도시 건설'의 컨트롤타워 역할 을 단당하다

지난 10일 열린 첫 실무회의에서는 안전도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화재와 교통,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까지 7개 분야를 중점으로 각각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가기로 결이했다

나주시는 최근 3년간 발생했던 범죄, 교통사고 (나주경찰서), 학교폭력, 학교안전사고(나주교육청), 화재 및 응급사고 (나주소방서)등과 관련해 유형별 사고발생 현황과 발생사유를 파악하고 예방 및 감소대책 강구 및 향후 추진계획 수립, 우수시책 추진 사례 검토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인규 시장은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분명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경쟁에 뛰어든 나주시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



나주시와 나주경찰서, 나주소방서, 나주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4개 기관으로 구성된 '안전도시만들기' TF팀원들이 최근 나주시청에서 첫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안전도시 컨트롤 타워 구축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 기초해 나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부터 국제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장기계획으로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최자하고 있다.

국제안전도시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역사회안전증진 협력센터에서 정한 7가지 기본 원칙에 적합한 사업을 기획하 고 일정기간 추진한 뒤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안전 도시로 공인받는 것이다.

나주시는 올해 안전지수 7개 분야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시작으로 공인된 타시·군 모니터링 작업을 비롯한 안전도시환경진단-실현방안-추진계획을 골자로 기본계획용역 수립에 착수하는 등 안전 지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 자문 위촉, 포럼 및 토론회 개최 등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 제도 도입

나주시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추진중이다.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 및 후유 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전 보장 장치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시민안전보험제도는 법제심사와 향후 조례규

칙심의 등을 거쳐, 조만간 조례 등이 공포될 예정이다.

■ 'CCTV증설' 등 시민체감 안전 행정 추진

나주시는 중장기 전략은 물론 시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 읍면동 CCTV 증설 및 빛가람동 U-CITY 통합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방범 시스템을 가동 등 이다.

또 영산강 둔치공원, 영상테마파크, 느러지전망대, 빛가람 호수공원 등 일대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 체감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GMO 안전지대 구축, GAP인증면적 확대, 지역별 농경지 토양환경 조사 분석결과 제공 등을 통해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강 시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이라면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1000여 나주시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 그리고 시민 모두가 적극 합심해 안전한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나주=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강인규 나주시장이 U-CITY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시민들의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나주시가 공공 화장실 곳곳에 설치한 여성안심벨.



강인규 나주시장이 개장을 앞둔 금성산 물놀이장을 점검하고 있다.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